

“현아~ 농구부 가자!”

방과 후. 종례가 끝나자마자 유아가 우다다 달려와서 팔을 질질 끌어당겼다. 농구부에서 그녀의 대활약을 지켜보는 것은 눈이 즐거운 일이지만, 아쉽게도 오늘은 할 일이 있었다.

“미안, 오늘은 좀 들릴 데가 있어서 말이야.”

“뭐어~? 어디 가는데! 오늘은 학원 가는 날도 아니잖아!”

“가끔은 모른 척 좀 해줘.”

“그런 게 어딴어~ 미나야! 현이가 나한테 숨기는 거 있대!”

발을 동동 구르며 떼를 쓰던 유아는 마침 근처에 있던 미나에게 달려들어 하소연을 했다. 그래, 착하지 착하지 하고 유아를 달래던 미나는 휴대폰을 한 번 보더니 뭔가를 눈치챈 듯 요망한 미소로 나를 흘겨보았다.

“그래, 벌써 그런 시기가 됐단 말이지? 올해도 기대할게.”

“진짜 눈치는 되게 빠르네.”

“어? 뭔데?! 왜 나한테만 안 알려주는 건데, 왜~~”

“기다린 만큼 그때가 됐을 때 기쁨이 배가 될 거야. 오늘은 그냥 보내주자.”

“싫어~~~~”

유아가 울부짖으면서 저항했지만 미나는 절대 봐주지 않았다. 나에게 매혹적인 눈웃음을 던지고는 그대로 유아를 끌고 퇴장해 버리자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에게 단번에 들킨 것은 좀 분하지만, 그녀 덕분에 유아라는 최대 난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맛있는 걸 사줘야겠는걸.

“그럼, 가볼까.”

받은 만큼 돌려줄 때다.

내가 향한 곳은 저번에 유아와 쇼핑을 갔었던 백화점이었다. 이곳에는 고급 디저트를 파는 구역이 따로 있었는데, 오늘의 목적지는 그곳이었다.

오늘은 3월 11일. 3일 뒤면 화이트데이가 온다. 오늘 백화점을 찾은 것은 여자애들에게 보답할 거리를 사기 위해서다.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정성이 듬뿍 들어간 초콜릿을 많이 받았다. 미나는 미나다운 수완으로 예쁘게 모양이 잡힌 수제 초콜릿을 만들어줬는데 브랜드 초콜릿과 구분이 거의 안 갈 정도의 완성도를 자랑했다. 시유는 깔끔한 생 초콜릿을 만들어줬으며, 미오 선배는 시중에서 파는 평범한 초콜릿을 툭 던지고 가셨지만 그걸 사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상상해보니 그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퍼졌다.

그리고 대망의 유아는 올해 초콜릿은 자기 어머니가 만들어줬다고 하더니 자기 볼에 초콜릿을 묻히고는 그건 바로 나, 같은 소리를 하길래 성대하게 무시해줬다. 그 때문에 얼마나 뺨강을 부렸는지는 말할 것도 없으리라. 다행히 진짜 초콜릿은 따로 준비해두었는데, 풍당 오 쇼콜라라는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이름이었다. 맛은 무시무시하게 맛있어서, 여러모로 뇌리에 남은 밸런타인데이가 되었다.

이렇게 근사한 초콜릿을 잔뜩 받은 만큼 그에 대한 보답을 확실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과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지금부터 연습할 자신도 없으니 그냥 고급 디저트를 살 뿐이었다.

마카롱, 사탕, 마시멜로 등 보편적인 화이트데이 상품부터 보기만 해도 고급스럽게 맛있어 보이는 디저트까지. 단순히 기성품을 살 뿐이었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꽤 고민이 됐다.

평범하게 유명 마카롱 같은 걸 해도 충분히 기뻐할 것 같지만, 올해 밸런타인데이 때 받았던 걸 생각하면 평범한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어떤 게 좋을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한참을 고민하던 중.

마주치면 안 될 사람을 발견하고 말았다.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디저트를 둘러보고 있던 와중 어떤 여자가 나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흘끔흘끔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마치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질 않아 말은 걸지 못하지만 신경 쓰여서 계속 눈치만 보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정체를 먼저 확신한 건 내 쪽이었다.

어딜 어떻게 봐도 틀림없는 시유였다.

나인 걸 알았으면 그냥 말을 걸면 될 것을. 답답함에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었다.

선물을 사려는 곳에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만큼 거북한 상황은 없다. 웬만하면 선물은 서프라이즈로 주고 싶고, 그럴 때 기쁨이 배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모든 변수를 제거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런 줄 알았다. 유아는 미나가 처리해줬고, 선배는 요즘 공부를 하는 분위기고, 지혜가 날 따라올 리는 없다. 시유는 도서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

이미 마주쳤으니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도 부담스러우니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겠다.

“어이, 정시유.”

“수, 수현 군... 우연이네요.”

집중 관찰 대상이던 내가 몸을 휙 돌려 자신에게 걸어오자 시유는 크게 몸을 떨었지만 다행히 도망가지는 않았다. 오히려 내가 말을 걸어주길 기대하고 있었던 눈치였다. 그 증거로 내가 말을 걸자 시유는 기다렸다는 듯이 베시시 웃으며 우연이라는 말을 강조했다. 정말 내향적인 아이다.

“오늘은 틀림없이 도서관에 있을 줄 알았는데.”

“오늘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사러 왔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수현 군과 정말 닮은 사람을 발견해서 저도 모르게 그만... 호, 혹시 불편하셨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나란 걸 알았으면 바로 말을 걸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가 만약 수현 군이 아니라면 전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예요...”

“목숨은 소중한 여겼으면 좋겠는걸.”

하지만 심정은 이해한다. 생판 남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말을 걸었을 때의 수치심은 나조차도 버티기 힘들 정도다. 소심한 시유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수현 군이야말로 이곳엔 어떤 일로...”

아, 그러고 보니 그랬지. 나는 선물 상대에게 선물을 고르는 모습을 발각당한 상태였다. 이걸 어떻게 둘러대는 게 좋을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적당히 얼버무리는 선택지를 골랐다.

“오늘은 단 게 땡기더라고. 이곳에 파는 디저트가 맛있다는 말을 들어서 말이야.”

“그렇죠. 여기 디저트는 다 맛있더라구요. 저도 애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유아 양에게서 들은 건가요?”

“뭘, 그렇지?”

“유아 양은 같이 안 온 건가요?”

“개는 농구부 연습이 있어서 말이야. 나 혼자 왔어.”

“흐음... 뭔가 수상한데요. 혹시 뭐 숨기고 있나요?”

앵?

어라?

시유 애가 갑자기 왜 이런담?

갑자기 눈빛이 바뀌어서 나를 의심하고 있는데?

“숨기긴 뭘?”

“유아 양이 그런 애기를 할 때는 보통 같이 가자고 권할 때가 많잖아요? 수현 군도 웬만하면 권유를 받아들이는 편이고요. 농구부 연습이 있다면 기다렸다 같이 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일 텐데 수현 군이 굳이 혼자서 디저트를 사러 온다는 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내가 항상 개 부탁을 들어준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야.”

“분명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수현 군... 디저트... 남자... 혼자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 중얼거리면서 혼자 생각에 빠지는 시유. 그녀의 돌발 행동에 나는 적잖이 당황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의 목적을 들키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 서프라이즈가 아니게 될 뿐이고, 오히려 취향을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가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로 추리에 집중하는 모습 그 자체였다. 애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안절부절 하든 말든, 그녀는 계속해서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마침내 답을 이끌어낸 듯, 여느 때보다 환한 미소로 답을 외쳤다.

“알았어요! 수현 군은 화이트데이 선물을 고르러 온 거였군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그랬네요! 확실히 화이트데이 답례라면 유아 양이나 미나 양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걱정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요.”

말겨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가슴을 짝 펴는 시유. 우쭐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서 좀 놀려주고 싶어졌다.

“대단하네. 추리 잘 하는데? 요즘 추리 소설이라도 보는 거야?”

“네. 실은 오늘 사러 온 책도 추리 소설이거든요.”

“특히 ‘알았어요!’라고 외치고 추리 결과를 말하는 건 진짜 명탐정 같았어.”

“네, 네에... 아하하, 어쩐지 부끄러운데요...”

“‘수현 군은 화이트데이 과자를 고르러 온 거였군요?’ 이야, 정말 완벽한 추리여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 그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진짜 갈수록 부끄러워지는데...”

“왜, 진짜 추리 소설의 한 장면 같아서 멋있었는데. 특히 ‘수현 군... 디저트...’하고 단서를 중얼거리는 모습은 정말로 탐정 같았어.

“이, 잊어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몰입하다 보니 그만...!”

“대단하십니다, 명탐정님.”

“아아아...!!”

하다 보니 좀 재밌어져서 그대로 한동안 놀렸더니 마지막에는 정말로 울음을 터뜨리려고 하길래 황급히 그만두었다. 뭐, 이 정도는 남이 숨기고 싶은 걸 멋대로 폭로하는 행위에 대한 보복이라고 해도 되겠지.

그나저나 일단은 들켰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시유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유는 여기 자주 오는 거야? 뭔가 추천해줄 만한 거 있어?”

“그렇네요... 서점에 들를 때마다 뭔가를 사곤 하죠. 평소에는 크레이프나 글레이즈드 도넛을 주로 먹는데, 화이트데이에 선물할 만한 건 아니고...”

여러 가게를 집으면서 여기는 이게, 저기는 저게 맛있다고 열심히 설명해주는 시유. 솔직히 이렇게까지 잘 알고 있을 줄은 몰랐다. 역시 여자애들은 달콤한 걸 좋아하는 걸까.

“마카롱도 맛있고 저기 빵집도 맛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유아 양이나 미나 양은 수현 군이 뭘 선물해도 좋아해 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밸런타인데이 때 워낙 기합이 들어간 초콜릿을 받아서 말이야. 좀 제대로 된 걸 고르고 싶어서. 그리고 난 시유 취향도 알고 싶고.”

“예...? 제 취향은 왜요?”

“그야, 시유 너에게도 줄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말하자 시유의 움직임이 멈췄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마치 정지 화면마냥 눈마저 깜빡이지 않고 있었다. 내가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나.

그러다 갑자기 목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빨갱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펄 소리라도 날 것 같은 기세로 김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예? 예? 어, 어째서? 예?”

고장 난 기계처럼 의문사를 남발하는 시유. 이걸 그거군요. 자신에게도 화이트데이 선물을 줄 줄은 몰랐던 모양이네요.

“시유 너도 밸런타인데이 때 초콜릿 줬잖아. 생 초콜릿, 진짜 맛있었어. 그만한 초콜릿을 받았으니 나도 시유가 좋아하는 걸 주고 싶은데.”

“예? 예? 그치만,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째서? 왜? 예?”

이거 증증이다. 사고가 상황을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뺨의 열기를 이겨내지 못한 듯 두 뺨에 손바닥으로 꼬옥 붙잡고 혼란스러워 하는 시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몸을 베베 꼬는 시유.

솔직히 참을 수 없을 만큼 귀여웠다.

“어, 어떡하죠... 저, 지금 너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적어도 화이트데이 보답은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게요! 저 그날까지 살고 그냥 죽을게요! 이제 더이상 여한이 없어요...!”

“농담이고, 화이트데이 지나서도 살아 있어주면 고맙겠어.”

“에헤헤... 이제는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제는 헤실헤실 풀리는 뺨을 주체하지 못하는 시유. 당혹감에 이어서는 행복감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신경 물질을 방출하다가 진짜로 죽는 거 아냐?

이후로도 시유는 감정 조절을 전혀 못하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희망 사항을 얘기했다. 그녀가 선택한 것은 평범한 마시멜로였다. 크게 비싸지도 싸지도 않으면서 특별함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저 마시멜로.

“그런 걸로 괜찮은 거야?”

“네, 충분해요. 수현 군, 제가 수현 군에게 처음 추천해 준 소설이 뭔지 아시나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였나?”

작년 일을 떠올린다. 도서위원 일이 너무나도 따분했던 나는 그녀에게 소설 추천을 받았었

다. 평소에 잘 보지 못하는 소설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에 그녀는 이 소설을 골라줬었다.

“맞아요. 그 소설의 명대사도 기억하시나요?”

“[나는 너를 마시멜로해]... 아, 그래서?”

“저는 그 대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감정을 단순히 사랑이라고 이름짓기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말...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자신만의 단어로 감정을 정의한다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마시멜로를 소중하게 감싸 안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특별한 사랑. 그것은 마치 내 손에 걸려있는 다섯 개의 붉은 실을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들에게 있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인연. 그것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그녀들 본인 일 것이다.

그들은 어떠한 이름을 붙일까.

확실한 건, 그것은 그들의 권리라는 것이다.

“수현 군?”

“...미안. 잠시 멍하게 있었네. 오늘은 어울려줘서 고마워. 답례로 나도 시유 책 사러 가는 데 어울려줄게. 아, 그 전에 이거 계산하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나는 그녀에게서 마시멜로를 받아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내가 그녀에게서 조금 멀어진 사이에 그녀는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너무 작아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저희의 관계도, 마시멜로처럼 녹아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유 덕분에 무사히 선물도 다 골랐고, 화이트데이 당일이 되었다.

평소처럼 날 깨우려 방에 들어오는 유아. 그런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했다.

평소 같았으면 요란스럽게 들어와 단번에 잠기운을 날려버리는 에너지를 방출했을 텐데, 오늘은 발걸음도 살금살금, 행동도 조심스러워서 문이 열리는 소리만 아니었으면 왔는지도 모를 뻔했다.

문 쪽을 등지고 누워 있었던 나는 상황을 파악하고자 잠꼬대를 하는 척 몸을 뒤집었다. 내가 갑작스럽게 움직이자 유아는 흠칫 놀라더니 내 얼굴을 조용히 관찰하고는, 내가 더 이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안심한 듯 다시 조심스럽게 행동을 개시했다.

역시 평소와는 다르다.

방안을 살금살금 돌아다니던 유아는 내 가방을 한 번, 서랍을 한 번 뒤졌다. 나랑 유아 사이인 데다가 딱히 숨길 만한 것도 없으니 다행이지만 다른 사람 집에서도 그랬다간 절교당할 지도 모르니 조심해.

그렇게 몇몇 수납공간을 뒤진 유아는 원하는 걸 발견하지 못했는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발견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 거실 쪽에 숨겨뒀으니까.

유아라면 오자마자 화이트데이 선물을 뒤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방안에 숨기지 않은 게 신의 한 수였군.

몰래카메라는 이쯤 하면 충분하다. 이제 남의 방을 멋대로 뒤진 벌을 줘야겠지?

“너 뭐하냐?”

“와아아아악!! 까, 깜짝이야! 허, 현아, 깨어 있었어?!”

내가 이불을 벌럭 젖히면서 일어나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유아는 집이 떠나갈 정도로 큰 비명을 질렀다. 평소라면 이 정도로 놀라지 않았겠지만 오늘은 켕기는 게 있는 만큼 더 놀란

것 같았다.

“누가 방을 뒤흔드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말이야. 혹시 유아 너야?”

“아, 아니~ 나 아닌데! 아, 아까 현이 어머니가 잠깐 들어오시긴 했는데 그 때문일까나?”

“너 거짓말 할 때마다 사이드테일 만지작거리는 버릇 좀 고쳐라.”

“앗! 우으... 죄,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뒤졌어요...”

내 지적에 깜짝 놀라며 머리카락에서 손을 떼는 유아.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모든 걸 들킨 유아는 자포자기 상태로 순순히 잘못을 밝혔다.

“왜 그런 거야?”

“그치만 오늘... 화이트데이인걸. 기대 잔뜩 했다가구.”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방을 함부로 뒤흔들면 안 되지.”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좀 더 성의를 담아서. 잘못을 했으면 뭘 받아야 하지? 그리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말해.”

“혀, 현이가 자는 사이에 현이 방을 멋대로 뒤흔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아에게, 벌을 내려 주세요!”

“어떤 벌을 받고 싶은지도 말해볼까?”

“어?! 으, 으음... 어, 엉덩이 맞는다거나...?”

“꼭 이어서 말해봐.”

“현이가 자는 사이에 방을 멋대로 뒤흔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유, 유아 엉덩이를 팡팡 해주세요!”

“더 크게!”

“엉덩이를 팡팡 해주세요!!”

뭐지, 이 감각은? 처음에는 장난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등골이 오싹오싹한 이상한 감각이 들었다. 미소녀가 얼굴을 빨갱게 물들이고 수치심을 느끼는 모습, 죄송하다고 잘못을 빌면서 자기 스스로 엉덩이를 때려달라고 빌기까지.

뭔가 새로운 문을 열릴 것만 같다...!

그 순간, 어머니가 아침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와 내 정신을 현실로 되돌려놓았다. 찰나의 순간 해선 안 될 일을 해버렸다는 생각이 든 나는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고 자리를 떴다.

위험했다... 하마터면 이상한 방향으로 각성할 뻔했네.

약간 어색해진 분위기로 아침을 먹고 집을 나선 나는 마침내 유아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을 주었다.

그녀에게 준 것은 해외 유명 젤리였다. 가볍고 상큼발랄한 느낌이 유아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고른 것이었다.

예상대로, 유아는 크게 기뻐하며 젤리를 몇 개나 입안에 털어 넣고 즐겁게 우물거렸다.

“으음~ 맛있다! 이거 평범한 젤리가 아니네? 안에 시럽이 들어 있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감상을 늘어놓으며 입을 우물거리는 유아. 몸은 이렇게 저렇게 큰데 하는 짓은 영락없는 꼬맹이니 여느 때보다 훨씬 귀엽게 보였다. 맘에 든 것 같으니 다행이군.

“야호, 안녕. 뭐 하고 있어? ...아하, 오늘이 그 날이구나.”

그때, 등 뒤에서 미나가 나타나서는 젤리를 맛있게 먹는 유아를 보고는 뭔가를 알아챈 듯

능글맞게 웃었다. 그러더니 뽀뽀스럽게 나한테 손바닥을 척 내밀고는 빨리 달라는 듯이 재촉했다.

정말 눈치만 빨라가지고는.

태도가 약간 불만이었지만 어차피 건넌 예정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미나에게 줄 화이트데이 선물을 꺼내 손바닥 위에 공손히 올려놨다.

“마카롱인가. 뭐, 센스는 나쁘지 않네.”

“굉장히 잘난 듯이 얘기하시는군요, 미나 양.”

“그야, 밸런타인데이 때부터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번에는 도와주기도 했고. 그치?”

“그 일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날 미나가 유아를 잡아가지지 않았다면 평화롭게 선물을 고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답례도 담아서 상당히 고급 브랜드의 마카롱을 사왔으니 통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미나는 이 정도로 넘어갈 생각이 없었다.

“근데 조금 부족한걸.”

“뭐?”

“내가 그 초콜릿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아? 그에 비해서, 이 마카롱. 물론 고급인 건 알겠지만 정성이 부족해 보이는걸.”

확실히 수제는 아니지만, 엄청 고민해서 고른 건데. 그 사실은 미나도 충분히 알고 있을 터였다. 그렇다는 건 이 녀석, 나에게 뭔가 시키고 싶은 건가.

“그렇지, 이왕이니 하나 먹여주면 인정해주도록 할게.”

“야, 여기 길 한복판이거든?”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것도 미나에게 마카롱을 먹여준다? 그 즉시 미나의 추종자들에게 얻어맞아도 할 말이 없다.

게다가 옆엔 유아도 있다. 한창 젤리를 즐기던 유아 역시 미나의 폭탄 발언에 깜짝 놀라는 썩는 것도 멈추고 나를 맹렬히 노려보았다. 절대 안 돼,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다.

하지만 그런 건 미나에겐 알 바가 아닌지, 나에게 마카롱을 떠넘기더니 눈까지 감고는 입을 벌렸다. 하얀 이와 건강한 색의 혀바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뭔가 야한 느낌이 들었다. 여고생의 입속을 들여다본다는 건 어쩌면 터무니없는 행위가 아닐까?

그녀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건 진심이라는 거다. 웬만한 설득으로는 절대 뜻을 굽힐 것을 알기에 나는 한숨을 쉬면서 마카롱 하나를 집어 들었다.

“딱 한 번만이다.”

“알았으니까 빨리. 자, 아~양.”

요망하게도 아양 소리까지 내다니.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마카롱을 그녀의 입으로 천천히, 천천히 옮겼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미나의 입속으로 마카롱이 들어가려던 순간.

“절대 안 돼!!!”

옆에서 유아가 난입해서 내 손의 마카롱을 순식간에 낚아챘다.

“현이 너, 우물우물, 나라는 여자가 있는데도 우물, 아, 이거 맛있다! 이게 아니라, 다른 애한테 양이라니, 우물, 꿀꺽. 아무리 상대가 미나라도 절대 용납 못 해!”

썩썩거리면서도 마카롱을 음미하는 것은 놓치지 않는 유아. 미나 쪽을 보자 그녀는 입을 거둔 상태였다. 혹시 그냥 넘어가는 건가?

“아아, 딱 한 번의 기회였는데 실패했네. 이래서는 올해 화이트데이 불합격인데?”

“이거 시도 횡수도 있는 거였어?”

“수현이 내가 한 번만 한다고 했는데 실패한 거잖아. 아무래도 다른 걸로 보답을 받아야겠는걸?”

의미심장하게 웃은 그녀는 머리를 뒤로 넘기면서 내 귓가에 얼굴을 가져다댔다. 부드러운 숨결이 귀를 훑자 참을 수 없는 간지러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이어서 그녀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울리자 형용할 수 없는 감각이 밀려 들어왔다.

“이번 주말, 나랑 데이트 해주면 용서해줄게.”

“뭐?”

“약속한 거다?”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의 몸은 이미 멀어진 상태였다. 내가 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전에 그녀는 방방 뛰는 유아를 달래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마치 거부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다.

그야말로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유아와 미나에게는 줬고 시유에게는 그 자리에서 줬으니 남은 건 미오 선배뿐이다. 쉬는 시간을 틈타 3학년 교실로 향했지만 선배는 자리에 없었다.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혹시나 해서 화장실 쪽으로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막 나오고 있는 선배가 보였다.

“선배, 안녕하세요.”

“어?! 그, 그래.”

서둘러 다가가 인사를 건네자 드물게도 선배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어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머리카락을 살짝 매만지고, 한시도 손끝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게 많이 긴장한 것처럼 보였다.

“왜 그러세요?”

“아니, 그제... 아, 암것도 아냐, 임마.”

“혹시 화이트데이 선물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다 알면서 뭘 물어보냐!!”

갑자기 벌떡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선배. 와, 이번 건 진짜 무서웠다. 마침 화장실 앞이니 방광의 한계가 오면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겠다.

한편 선배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굴을 약간 붉힌 채로 주저리주저리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 그야 나도 기대 정도는 해도 되잖나. 일단, 저번에 초콜릿도 줬고? 이렇게 굳이 찾아오기도 했고 너... 이러면 긴장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뭐, 그렇죠. 저번에 초콜릿 주실 때가 생각이 나네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별별 떨면서 거의 던지다시피 초콜릿을 쓱쓱 선배 숨 막혀요!”

“그 이상 지껄여봐... 하루종일 팔다리를 별별 떨리게 만들어 줄 테니까...”

무시무시한 얼굴로 먹살을 잡아드는 선배 팔을 탁탁 치면서 항복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하자 그제야 선배는 팔의 힘을 풀었다. 방금 조상님의 얼굴이 보였던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지.

“아무튼, 여기 답례요. 저번엔 고마웠어요.”

호흡을 가다듬은 나는 선배에게 선물을 건넸다. 유명 제과점의 막대사탕 세트. 선배는 평소에도 자주 막대사탕을 먹기도 하고, 공부하다가 당이 떨어질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다.

약간 멍한 채로 있는 선배에게 통을 억지로 넘기자, 선배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것을 받아 들었다. 마치 정말로 받을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뭔가 안 기뻐 보이는데요, 선배?”

“아니, 그제... 막상 이렇게 받고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현실성이 없다니요...”

“그치만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 받아보는 건 처음이라고!”

왈각 화를 내는 선배. 그렇지만 그 표정에는 조금씩 기쁨이 감돌기 시작했다. 입으로는 솔직하지 못해도 좋아하는 것 같으니 됐다.

이걸로 모두에게 화이트데이 선물은 졌다. 큰일을 해치웠다는 느낌에 은근한 달성감이 기분 이 좋다.

그때 화장실 쪽에서 의외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

“어라.”

참으로 뜬금없이도 지혜가 그곳엔 있었다.

이 녀석은 왜 3학년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지. 버젓이 2학년 화장실에 있는데. 그런 의문을 담은 눈빛을 보내니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을 해주는 그녀.

“2학년 화장실 층에 자리가 딱 차 있어서 말이야. 그보다 이 사람은 누구... 아.”

“너...”

지혜는 이제는 실실 웃기 시작하는 선배를 두고 뒤늦게나마 그 정체를 눈치챘다. 선배도 지혜의 존재를 알아채고 고개를 돌렸고,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다.

그리고 보니 두 사람은 저번에 강당에서 충돌할 뻔했었지.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만나다니. 어쩌면 생각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밝았던 선배의 표정도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지혜도 아차 싶은 표정이었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선배를 데리고 자리르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선배, 저희 그만 가죠.”

라고 말하면서 선배의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 저번엔 미안했다.”

갑작스럽게 선배가 먼저 사과의 말을 입에 담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지혜도, 나조차도 굳어버린 사이 선배는 계속 말을 이었다.

“뭔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말이야. 그랬으면 안됐는데, 하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아, 이런 건 역시 성격이 안 맞아! 하고 싶은 말은, 그니까, 미안했다고!”

뭐라고 말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성격이 따라주지 않는지, 마지막에는 머리를 긁적이며 멧쩍게 소리치고는 그대로 뛰어가 버렸다.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우리 둘은 처음엔 상황을 못 따라가서 멍한 상태였지만 곧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와아, 진짜 식겁했네. 난 또 뭐라 할 줄 알았어.”

“나도 선배 손 잡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선배도 이것저것 생각이 많았었나 보다.”

“진짜, 의외로 좋은 사람이네.”

“내가 그렇다고 말했잖아.”

“그러게. 근데 넌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아, 선배한테 줄 게 있어서.”

“흐음, 그러고 보니 화이트데이였지. 설마 내 것도 있는 건 아니겠지?”

“미안하지만 없거든.”

그 말을 들은 지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 자기랑 엮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 표정은 대체 무슨 뜻이냐.

“설마 받고 싶었던 거야?”

“그런 거 아니거든. 만약에 주려고 했으면 바로 거절했어. 그나저나 넌 좀 특이하네.”

“특이하다고?”

“보통, 운명의 상대가 있으면 신기해서라도 먼저 적극적으로 어프로치 하지 않을까. 넌 나머지 네 명과도 그렇게 친해진 줄 알았는데.”

“뭐, 그러는 사람도 있기는 하겠지. 하지만 난 은근히 낯을 가리거든. 그리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화이트데이 선물을 받아도 당황스럽기만 하잖아. 정말로 운명이라면,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어떤 식으로든 엮이게 되어 있어.”

“뭔가 재수 없는 이유였네.”

“자기가 물어봤으면서.”

“그럼 난 최대한 너랑 안 엮임으로써 네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야겠네.”

이 녀석은 또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렇게나 운명이니 인연이니 하는 말이 싫단 말인가. 도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것만큼은 정말 신경 쓰였다.

“넌 왜 그렇게 운명을 싫어하는 건데?”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창밖을 향했고, 나도 그 시선을 쫓았다. 화이트데이의 하늘은, 하얀 구름 한 점 없는 파란색이었다.

그렇게 한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나서야 그녀는 말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알려줄 이유는 없지.”

“이렇게 똬를 들이고는 결국 말해주지 않는 거냐고.”

“들어도 재미없는 이야기야. 난 간다.”

어이없어하는 나를 내버려 두고 그녀는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그와 동시에, 수업 종이 울렸다. 나도 빨리 교실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나는 잠깐 다시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저 푸른 하늘에서 무슨 생각을 보고 있었을까.

아직 친하지 않은, 친해질 생각도 없는 그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목요일. 준석 쌤한테 걸려 잡무를 처리하느라 시간을 잡아먹은 나는 약간 늦게 체육관으로 향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모처럼 유아와 미나랑 같이 돌아가려는 생각이었다.

체육관 문을 열자 불이 코트와 부딪히는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왔다. 나는 그 사이에서 유아와 미나의 모습을 찾았고, 곧 두 사람의 웬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상황을 보니 흰칠한 키에 상당히 훈훈한 외모의 어떤 남자가 두 사람에게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다. 그런데 어째선지 둘 다 표정이 그리 좋지가 않았다. 대화는 오래 가지 않았고, 남자는 자신의 일행 쪽으로, 유아와 미나는 여자 농구부 쪽으로 향했다.

곧 요란한 휘슬 소리가 울리고, 각자 개인 연습을 하던 부원들이 감독 앞으로 모였다. 네 팀으로 나뉜 그들은 연습 경기를 시작했고, 유아네 팀과 미나네 팀은 사이드로 빠졌다. 아무래도 두 사람의 경기는 다음 차례인 것 같았다.

“아, 현이다! 일은 다 끝냈어?”

“어. 별 거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이나 잡고 말이야, 진준석. 그나저나 아까 누구랑 얘기한 거야?”

“어? 아~ 응, 봤어?”

그러자 유아가 정말 드물게도 질색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망설였다.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구는 사교성 탑의 유아가 이렇게까지 싫어하다니. 어떤 의미로는 대단한 사람이군.

그때 옆에서 미나가 나타나 유아 대신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남자 농구부의 3학년 선배. 엄청난 바람둥이라더라.”

“그딴 놈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라?”

“헌팅은 아냐. 워낙 악명이 높다 보니 다들 알아서 피하니 수확이 영 별로니까, 신입생이나 전학생처럼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노린대. 생긴 건 반반하게 생기고 매너 있는 척도 할 줄 아는 편이라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더라.”

“맞아! 우리도 작년에 당했었어. 느닷없이 불러내서는 고백 박더라고! 바로 거절했는데 계속 질척거리서 진짜 별로였어. 미나한테도 똑같이 그러더라. 완전 극혐.”

어지간히도 인상이 나빴는지 유아가 찹찹대면서까지 불만을 토했다. 진짜 세상엔 이상한 사람이 정말 많군.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네. ...혹시?”

“그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대.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물어보더라고.”

설마 지혜가 그딴 놈의 눈에 찍히다니. 지지리 운도 없구나.

속으로 혀를 차고 있었는데 미나가 심상치 않은 눈초리로 날 보고 있었다. 뭔가 할 말이 있는가 해서 눈짓으로 묻자 그녀는 그다지 내키지 않는다는 말투로 내게 조용히 물었다.

“어떡할 거야?”

“뭘?”

“저 선배, 약간 진심으로 개를 노려볼 생각인 것 같던데. 충고라도 해주는 게 좋지 않아?”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에 나는 생각에 잠겼다.

여러모로 감정의 골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반 친구인 데다가 붉은 실로 이어진 아이다. 질 나쁜 놈이 달라붙을 조짐이 보인다고 경고해주는 것은 분명 나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들 녀석이 순순히 믿어줄지는 모르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괜한 참견이라고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다. 녀석의 일은 녀석이 알아서 하는 것도 맞다. 녀석의 연애 사정에 이것저것 말하는 거야말로 정말 괜한 참견이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보류였다.

“뭘, 아직 아무 문제도 없으니 가만히 뒹도 되지 않겠어?”

“그건 그렇지만.”

“그리고 정말 걱정되면 미나 네가 말해주면 되잖아.”

“난 개랑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인걸.”

“의외네. 친한 거 아니었어?”

“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속닥대면서 투닥거리고 있었더니 돌이서 그만 노닥거리라는 유아의 볼멘소리가 들려왔다. 곧 유아는 심심하니까 1대1이나 하자고 미나에게 엉겨 붙기 시작했다. 이대로 놔두면 계속 칭

얼델 것을 나와 미나 둘 다 알고 있었기에 미나는 순순히 유아를 따라갔다.

“참, 그보다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그 백화점에서 보자. 바람맞히면 진짜 죽어.”

자리를 뜨기 전에 미나가 찡긋 윈크를 하면서 약속 시간을 통보했다. 그리고 보니 강제 데이트 일정이 잡혀있었던 것이다. 저렇게 말했는데 핑크내면 내 머리를 농구공 삼아 덩크슛을 꽂아버릴지도 모른다.

“어?! 둘이 주말에 놀러 가? 나는? 나느으은?!”

“유아는 안 돼. 우리 둘만의 약속이니까.”

“그런 게 어딴! 치사해. 이거 완전 새치기야! 뭐 이상한 짓 할 건 아니지?!”

“글쎄, 어떨까나. 발이 아파서 어디 숙박 시설 대실해서 쉬다 갈지도?”

“안 돼! 절대 안 돼! 현아, 나 따라갈래. 따라가도 되지?!”

“뭐, 따라와도 되지 않을까... 아악! 야, 뭐하는 짓이야!!”

은근히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미나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에 나는 다리를 붙잡고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이번 주말은 나랑 수현이와의 시간이니깐, 방해하면 안 돼. 유아야, 알겠지?”

“싫어! 나도 갈래! 나도 갈 거야~!!!”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지르는 나와 바닥에 대자로 누워서 생떼를 부리는 유아. 느닷없는 소음 공해에 제대로 열이 뻗친 여자 농구부 감독 선생님이 나를 체육관 밖으로 쫓아내 버렸다. 억울하다. 유아도 시끄럽게 했는데!

그나저나 토요일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유아와 달리 미나는 갑자기 훅 들어오는 타입이라 예상이 안 된다.

제발 무탈한 하루가 되기를, 하고 비는 게 최선이었다.

약속 시간까지 앞으로 5분.

나는 백화점 앞 넓은 광장 앞에 서 있었다.

3월 중순을 넘어갔지만 아직 추위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 안에 베이지색 긴 소매 니트를 확실하게 챙기고 검은 카디건을 걸친 나는 미나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공세를 어떻게 넘길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여, 일찍 왔네?”

그때 또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린 나는 그만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미나는 목까지 올라오는 검은 니트 스웨터에 황색 코트를 걸쳤고, 민무늬 흰색 스커트 아래로 짙은 다리는 굵직한 롱 부츠에 감싸여 있었다. 열게 화장을 하고 광택이 도는 립을 바른 입술이 요염하게 반짝였다. 검붉은 계통의 체크무늬 뺨모자까지, 평소 어른스러운 분위기와 코디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누가 봐도 사회인 여성 같은 느낌을 물씬 풍겼다.

평소보다 훨씬 성숙미가 돌아서 같이 걸어 다니기 부담스러운 정도의 미인이 그곳에 있었다.

미나는 말문이 막힌 나를 보고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곧 좋은 빌미를 잡았다는 듯이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나를 쿡쿡 찔렀다.

“어러어라, 임수현 씨, 왜 그러시나? 내가 너무 예뻐서 할 말이 없는 건가?”

“아니, 그게. 너 뭘 그렇게 힘을 주고 온 거야.”

“오늘을 위해서 언니 옷을 잔뜩 빌려왔지. 어때, 잘 어울려?”

“숨이 막힐 정도인걸.”

“그런 큰일이. 내가 인공호흡이라도 해줄까?”

“정말로 날 죽일 셈이야?”

“데이트하다가 죽으면 곤란하니까 이쯤에서 그만둬 줄게.”

뭐가 그리 즐거운지 쿡쿡거리며 웃는 미나. 웃는 모습마저도 너무나 매력적이었다. 교복을 입은 모습과는 또 다른 엄청난 갭이 있었다.

잘못하다간 오늘 정말로 기가 빨려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늘 뭐 할 건데?”

“데이트 플랜도 안 만들어 온 거야? 임수현, 마이너스.”

“무슨 점수의 마이너스냐고.”

“나랑 헤어질 확률이려나?”

“보통 반대 아냐?”

“이렇게 칠칠치 못한 남자는 내가 책임져야지. 이럴 줄 알고 내가 플랜을 짜왔으니 좀 어울려줘.”

“생각해 온 거 있잖아!”

“조금 시험해 본 거라고. 자, 그럼 가볼까?”

유쾌한 걸음으로 내 옆까지 온 미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장난기가 100배는 더해진 표정으로 내 팔을 살며시 껴안았다. 두꺼운 코트 위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탄력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갑자기 가까워진 거리에 은은하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어지럽혔다. 조금만 시선을 내려 보면 기다란 속눈썹이 보였다. 여러모로 심장에 안 좋은 거리였다.

오늘 하루 얼마나 이 녀석에 휘둘릴까. 걱정이 앞선 나는 몰래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가 처음 향한 곳은 종합 오락 시설이었다. 노래방 부스부터 시작해서 각종 아케이드 게임이 모여 있는 곳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조명이 어지러이 날아다니고 요란한 소리의 쿵쿵거리는 비트에 자연스럽게 텐션이 올랐다.

뭘 해도 재밌을 것 같은 곳에서 미나가 맨 처음 고른 것은 노래방 부스였다.

“내기할까? 서로 3곡씩 불러서 함께 점수 더 높은 사람이 점심 쏘는 걸로.”

“자신 있나 보지? 노래방 기계는 점수 공략법이 있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네.”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보시지.”

그리하여 시작된 노래 배틀. 노래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선곡하기로 했다. 미나가 세 번째 곡을 끝낸 시점에서 점수는 나의 30점 리드. 마지막 곡을 엉망으로 부르지만 앓는다면 내 승리가 유력하다.

여기서 나는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정말 수도 없이 불렀던 애창곡을 골랐다. 말 그대로 거의 주물럭거릴 수 있을 정도로 숙련된 노래였고 불렀다 하면 100점이 나올 정도로 기계한테도 잘 먹히는 노래였다.

그렇게 노래를 시작하자, 미나도 깜짝 놀라 나를 돌아봤다. 아무래도 내가 너무 잘 불러서 놀랐나 보지. 코러스가 지나고 하이라이트 파트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노래에 더욱 몰입하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미나의 표정에 불안감이 감돌았다. 저 표정은 잘 안다. 자존심 센 미나가 질 것 같은 상황에서 곤잘 짓던 표정이었다.

‘점심값은 가져간다, 이미나.’

그런 마음을 담아 미나를 결눈질하자, 그녀는 뭔가 다짐한 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리에서 일

어나 내 뒤에 앉았다. 하지만 그 정도로 노래와 완벽하게 동화된 나를 방해할 순 없었다.

이제 곧 하이라이트. 여기서 완벽하게 터뜨리면 내 승리는 거의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

잠깐의 간주.

그리고 고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에, 무언가 따스한 물체가 등 뒤에서부터 감싸 안았다.

“가~~~?!”

깜짝 놀란 나는 그만 하이라이트 파트에서 뺄사리를 내고 말았다. 서둘러 뒤를 돌아보자, 미나가 내 몸에 팔을 감은 채 등에 전신을 밀착하고 있었다.

“야, 너 뭐하나?”

“그냥? 그보다 노래 불러야지?”

설마 이런 방해 공작을 펼칠 줄이야. 하지만 여기에서 포기할 수 없다. 한 구간을 통째로 날리긴 했지만 아직 마지막 코러스가 남아 있고, 그동안 벌어놓은 점수도 있으니 80점만 넘겨도 지진 않는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코러스 파트 고음으로 넘어가려는 타이밍이었다.

내 몸을 감싸고 있던 미나의 팔이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몸을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배, 가슴, 허벅지, 어깨, 옆구리. 코어부터 시작해서 상체, 하체를 다 더듬거리는 미나. 너무나 관능적인 그 손길에 나는 피가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는 듯한 불길함을 느끼고 팔짝 뛰어올랐다.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정도가 심하잖아!”

“무슨 문제라도 있어? 노래 안 불러?”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니거든!!”

그때 옆 부스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벽을 친 모양이다. 미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민폐도 끼치고, 이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그러나 이후로도 미나의 나쁜 손은 이어졌고, 결국 이후 코러스 파트를 모조리 놓친 나는 끔찍한 점수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러면 내가 이긴 거지? 점심 땡큐.”

“이렇게 이기면 쪽팔리지 않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이기면 장땡이라고.”

“다른 걸로 다시 해. 이번엔 내가 골라도 되지?”

히죽거리는 웃음으로 내 도전장을 받아들인 미나. 일단 점심값을 뜯긴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를 역전시킬 확실한 종목이 필요했다.

그 뒤로 나는 레이싱, 리듬 게임, FPS, 격투 게임 등 이런저런 게임을 골라서 미나에게 도전했지만 무엇 하나 이길 수 없었다. 오늘 부츠를 신고 온 미나의 약점을 노려 활동량이 필요한 게임으로도 덤볐지만 그것마저도 졌다.

마지막으로 한 농구 게임이 압권이었는데, 소원권을 걸고 900점에 가까운 기기 하이 스코어를 깰 수 있을까 내기를 했는데 미나는 그것마저 해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는 아예 기계랑 거리를 벌려서 3점슛을 쏘듯이 던지는 여유까지 부렸다.

하이 스코어가 경신되어 반짝반짝 빛나는 기계를 앞에 두고 히죽이는 미나에게 나는 두 손 다 들 수밖에 없었다.

“진짜 농구로는 당해낼 수가 없구나. 내가 졌다. 뭐든지 소원 하나 들어줄게.”

“으음~ 뭘로 할까나.”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미나의 모습이 여느 때보다 귀엽게 느껴졌다. 때로는 요염하게, 때로는 순수하게. 때로는 이렇게 귀엽게. 이런 다양한 얼굴이야말로 그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그러다 소원의 내용을 결정한 듯, 의미심장한 미소를 띄우는 미나. 내 옆으로 바짝 다가온 그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색기를 띤 목소리로 내 귓가에 소원을 속삭였다.

“유아한테 말한 대로... 진짜로 방 빌려서 쉬다 갈까?”

“야, 너...”

오싹한 느낌에 급하게 거리를 띄웠는데 미처 뒤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부딪히고 말았다. 후드를 푹 눌러 쓴 사람이었는데 내가 꾸벅이며 사과를 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는 도망치듯이 사라졌다.

한편 미나는 당황하는 나를 보면서 뭐가 그리 재밌는지 쿡쿡 웃고 있었다. 입꼬리는 여전히 요염하게 휘어 있었지만 눈은 완전히 놀릴 때의 눈이었다.

그나저나 방 빌리자는 얘기는 아무래도 농담... 이겠지?

“장난 좀 친 것 갖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수현이가 늑대가 되어 버리잖아. 마법부에 잡혀간다고? 그러니까 소원은 내가 생각이 나면 쓰도록 할게.”

“늑대가 아니라 돌하르방이겠지. 장난은 그만하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네, 나쁜 늑대 씨~”

“법사님이라 부르거라.”

이미 마음만은 도를 닦는 고승이었다. 그렇게라도 생각하지 않고서는 못 버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알면서 밀어붙이니까 더 파괴적이란 말이야, 미나는.

점심으로 미나가 고른 정통 일본식 돈카츠 정식을 즐기고 비싼 디저트까지 섭렵한 미나는 매우 만족스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반면 나는 지갑을 탈탈 털린 덕분에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뭘 빼져있는 거야? 찢으면 받아들여~”

“알고 있거든. 그거랑 이거는 별개야, 별개.”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미나는 쿡쿡 웃으며 눈앞에 있는 터치 액정 위에서 경쾌하게 손을 놀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현재 영화관에 와 있었고, 예매는 이미 미나가 다 한 상태였다. 철저하게 계획을 짰 모양이다.

나설 일이 전혀 없는 나는 옆에서 티켓 출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득 옆 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눈에 밟혔다. 화려한 금발에 모자와 마스크까지 쓰고 주변이 어두운데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와 묘하게 본 적 있는 것 같은 후드티를 푹 눌러쓰고 있는 사람. 두 사람은 기기를 어설프게 터치하면서 이쪽을 자꾸 흘금흘금 보고 있었다.

뭐 하는 녀석들인가 생각했지만 곧 그 이유를 알았다. 틀림없이 미나를 노리는 거겠지. 오늘은 정말 화려하게 입고 왔으니 남녀 불문하고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이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때 미나의 티켓팅이 끝났고 우리는 각자 팝콘과 음료수를 샀다. 물론 나는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미나가 팝콘 정도는 사줄 수 있다고 말해줬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기에 맨손으로 입장하기로 했다.

“근데 무슨 영화야?”

“약간 신기가 있는 여주인공이 스스로 자기랑 이어질 사람을 점쳤는데,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질색하며 거부하지만 이런저런 사건으로 마음이 바뀌고, 결국은 이어진다는 줄거리였던 것 같아. 이거 요새 인터넷에서 평가가 좋아서 예매해봤어.”

운명의 상대라. 어쩐지 남일 같지가 않다. 당장 내 주변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나저나 미나는 이런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

“이런 건 픽션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 픽션은 작가가 정하는 거니까.”

“캐릭터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들으면 싫어할 만한 이야기네.”

어떻게 보면 미나다운 생각이긴 했다.

직원에게 표를 보여주고 영화관에 입장한 우리는 성큼성큼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 끝에 있었던 것은 주변이 칸막이로 가려져 있고 자리 두 개가 붙어있는 형식의 좌석이었다.

이른바 커플석이라고 부르는 그거 말이다.

“우리 자리는 여기야.”

“미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뭐가?”

“왜 커플석으로 예매를 하신 거죠?”

“데이트니까 당연하잖아?”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미나. 그 표정에는 일말의 의심도 없었다. 이 녀석은 정말로 당연하다는 듯이 커플석을 예매한 것이다.

두통에 지끈거리는 머리를 감싸안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후였다. 이제 와서 예매를 취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좌석을 체크하는 거였는데. 지갑이 털린 충격으로 생각도 못했다.

“뭐해? 빨리 앉아.”

끓는 내 속도 모르고 먼저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옆자리를 톡톡 치는 미나. 하는 수 없이 나는 미나 옆에 앉아 살짝 거리를 띄웠다.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이었다.

그러자 약간 불만인 듯 인상을 쓴 미나는 내 팔을 붙잡더니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뭐하는데? 왜 떨어져 앉는데.”

“이 정도는 봐주면 안될까.”

“뭐 때문에 커플석으로 예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꾸 도망치면 영화 보는 내내 잡고 있는다.”

“그거는 진짜 봐줘.”

“그렇지? 알았으면 암전히 앉아 있어.”

엄중히 주의를 한 미나는 팔은 풀었지만 몸은 여전히 찰싹 달라붙은 상태였다. 러닝 타임 내내 붙잡힐 것이 두려워 감히 떨어질 수는 없었다.

그렇게 영화는 시작되었고, 최대한 미나의 감촉을 잊기 위해서 나는 영화에 몰두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영화는 굉장히 좋았다. 캐릭터 설정도 신선하고 적당한 코미디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으며 내용 전개에 있어서도 이상한 부분이 없었다. 마지막에 여주인공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남주인공한테 고백하는 장면에는 나도 모르게 마음이 몽글몽글해졌다.

정해진 수순처럼 고백을 받아주는 남주인공. 이에 마음이 벅차오른 여주인공은 그대로 남주인공에게 입을 맞췄다.

타이밍에 맞춰 웅장한 BGM이 흘러나오고 화면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빙빙 돌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 듯한 연출에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연출까지 완벽하다. 유아한테도 나중에 추천해줘야겠다.

그렇게 한동안 진한 키스신을 감상하고 있는데, 어째 좀 길지 않나?

그리고 좀 격하지 않나?

분명 서로 첫 키스일 텐데 고개를 이리저리 꺾으면서 다양한 각도로 서로의 입술을 탐하는 두 사람. 잠깐 떨어지더니 완전히 녹은 눈으로 서로를 한 번 바라보고는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다시 격하게 입을 맞쳤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이면 아무래도 낮간지럽다.

생각보다 더욱 진한 묘사로부터 피하듯이 눈을 옆으로 돌렸지만 그것은 명백한 실수였다.

옆자리의 미나는 완전히 몰입한 듯, 황홀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보고 있었다. 눈망울도, 입술도 촉촉하게 젖어 주인공들에게 동화된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요염해서 나도 모르게 뚫어지게 그 옆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내 시선을 눈치챘는지 미나도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촉촉한 상태 그대로 말이다. 스크린에서 펼쳐지고 있는 장면 때문인지 나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로 눈이 향했다. 만약에 저 위에 키스를 한다면. 그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할 정도로 나 역시 영화의 분위기에 취해 있었다.

기분 탓인지 미나와의 거리가 줄어든 것 같다. 아니, 기분 탓이 아니다. 자석 같은 미지의 힘에 의해 우리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화관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 커플석이라는 고립된 공간. 오늘은 유아도 없고 시유도 없고 선배도 없다. 나와 미나 단 둘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키스를 해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겠지.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미나의 향기가 더 진해졌고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제대로 사고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냥 눈앞의 장면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이제 미나의 뜨거운 숨소리가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진 그 순간.

돌연 영화관의 조명이 켜졌다.

삼시간에 주변이 환해지고 반사적으로 눈을 찡그렸다. 겨우 밝기에 적응이 되어 다시 눈을 또렷이 뜨자 얼굴을 새빨강게 붉힌 채 입술을 쑥 집어넣고 당황해하는 미나의 표정이 보였다.

그 순간 나도 정신을 차렸고 급히 몸을 뒤로 물렸다. 이번만큼은 미나도 별말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감히 말을 걸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관객이 하나둘 떠나가는 영화관 안에서 한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그, 그만 같까?”

“으, 응.”

간신히 쥐어짠 내 제안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별떡 자리에서 일어나는 미나. 날 기다리지도 않고 척척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나도 허둥지둥 일어나 그 뒤를 따랐다.

굉장히 위험했다. 하마터면 선을 넘을 뻔했다.

심장이 아직도 벌렁거리고 있었다.

그 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한 시간 조금 넘게 미나의 쇼핑에 어울려 준 다음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하고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버스를 타는 게 훨씬 빠르긴 하지만, 미나는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마침 나도 뜨거운 피부를 식히고 싶었기 때문에 순순히 그 결정을 따랐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이 시기의 날씨는 제법 쌀쌀하다. 환절기라 일교차가 큰 탓이리라. 그래도 다음 주, 다다음 주가 되면 완전한 봄 날씨가 된다고 한다. 그때쯤이면 벚꽃을 보러 가겠지. 분명히 유아가 꽃놀이를 가자고 제안할 것이다.

올해는 어떻게 자리를 꾸밀까 고민하고 있었더니 미나가 불문율을 깼다.

“오늘 영화 어땠어?”

영화를 보고 나와서도, 쇼핑을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언급하지 않던 주제를 돌연 꺼내는 미나. 나는 속으로만 당황하면서,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게 솔직한 감상을 말했다.

“꽤 재밌었어. 캐릭터도, 스토리도, 연출도 좋더라. 나중에 유아한테도 추천해주려고.”

“그러면 유아랑 영화 또 봐야 할 텐데?”

“그만큼 재밌었으니까 괜찮아.”

그때 뇌리에 진한 키스신이 떠올랐다. 감정이 가득 찬 미나의 눈동자도. 그 때를 생각했더니 순식간에 부끄러워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미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방금 상상했지?”

“뭘?”

“내 입술.”

갑자기 훅 들어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여느 때처럼 장난기 어린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백 퍼센트 놀리는 거라고 확신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보려고 했다.

“상상은 무슨. 전혀 안 했거든.”

“거짓말. 약간 얼굴이 빨간데?”

“적양 탓이야.”

“정석적인 변명이지만 안 속아.”

갑자기 앞으로 타다닥 뛰어가더니 급정지하는 미나. 이번엔 또 뭘 꾸미는가 싶어서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대로 일어났다.

설마 이게 노림수였던 말인가.

이 근방은 관광지라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다닌다. 당연히 그들을 목표로 하는 숙박 시설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미나가 멈춰 서 있는 등 뒤에는 커다란 모텔이 서 있었다.

생각 없이 그냥 미나가 가는 대로 걸었는데, 설마 여기로 유도한 거였나.

“한 번만 더 물을게. 상상했지?”

“안 했어.”

“발뺌하시겠다. 그러면 여기서 소원권을 써도 될까?”

“...야.”

“오늘 너무 많이 걸어서 지쳤는데. 여기서 조금만 쉬다 가고 싶으니 따라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미나. 부끄럽게도 잠시 흔들렸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다. 지금의 나는 냉정했다. 여기서 해야 하는 선택은 거절이었다.

어떻게 말할지 잠시 생각을 한 후, 나는 입을 열었다.

“나는...”

그때.

“안 돼애애애애~~~~~!!!!!!”

갑자기 옆에서 모자에 마스크, 선글라스까지 낀 금발의 소녀와 후드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쏜살같이 뛰어와 나에게 정면으로 부딪혔다. 너무나 갑작스런 충돌에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한

나는 그대로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뭘, 뭘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세히 보니 이 사람들, 영화관에서 우리 옆 기기를 쓰면서 슬쩍슬쩍 훑쳐보던 녀석들이잖아! 그리고 후드를 쓴 사람은, 잘 생각해보니 게임 센터에서 나와 부딪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 녀석들, 게임 센터에서 영화관,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 둘을 미행한 거였나?!

설마 미나의 스토커??

“안돼안돼, 절대 안돼! 저런 곳에 들어갔다간 현이의 순결이 위험해지잖아!! 난 절대 그런 꼴 못 봐!”

“수, 수현 군! 그런 짓은 학생들에게는 너무 일러요! 하, 하다못해 졸업하고 나서...!”

떼어내려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두 사람 간의 격렬한 몸싸움 중에 느닷없이 그런 말을 꺼내는 거동수상자들. 그런데 이 녀석들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지?!

가만, 그러고 보니 이 목소리는 들어본 기억이 있다. 그리고 이 금발, 잘 보니 염색이 아니라 자연이다. 게다가 현이, 수현 군이라는 독특한 호칭까지.

설마?

“너네... 유아랑 시유?!”

“미나랑 하면 안 돼~~!!!”

“부, 불건전해요!!!”

겨우 두 사람의 정체를 눈치채고 경악의 비명을 질렀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떨어질 줄을 몰랐다. 격한 몸부림 끝에 안경, 마스크도 날아가고 후드도 벗겨진 탓에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음에도 두 사람은 끝까지 매달리면서 영영 울부짚었다.

“...오늘은 글렀네.”

이 상황을 권외에서 지켜보던 미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깨를 으쓱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주실까.”

“두 사람의 데이트가 너무 신경 쓰여서 몰래 따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저는 서점에 책을 사러 가는 길이었는데 유아 양에게 붙잡혀서... 죄송해요.”

“게임 센터에서 부딪힌 건 시유였던 거네?”

“네, 네. 유아 양이 갑자기 사라져서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는데 부딪혔어요.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서도 우릴 훑쳐보고?”

“여, 영화관에 들어간단니까 우리도 같은 상영관 들어가려고... 근데 커플석이라니!! 현아, 아무 짓도 안 한 거지?!”

“...안 했어.”

애원하는 듯한 유아의 묻자 순간 묘했던 분위기가 떠오른 탓에 약간 답이 늦고 말았다. 거기서 이상을 감지한 유아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절망했다.

“히, 현이가 따먹혔어...”

“안 따먹혔거든! 그리고 그런 상스러운 말은 쓰지 마!”

“거의 따먹을 뻔했는데.”

“넌 좀 조용히 있어 줄래?”

안 그래도 얼굴이 화끈거린다고!

“그나저나 영화 재밌었죠. 특히 마지막의 키스신은 정말 황홀했어요. 미행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정신없이 봤지 뭐예요.”

과연 문학소녀답게 영화 감상평을 늘어놓는 시유. 하지만 다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발언 때문에 나는 곤란할 뿐이었다. 거기서 또 이상을 감지했는지 이번에는 시유마저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서, 설마 수현 군 벌써 미나 양과...”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일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표정 짓지 마!”

“무슨 일을 할 뻔했는데 말이지.”

“그러니까 넌 조용히 하라고!!”

충격에 휩싸여 입만 뻐끔거리는 유아와 시유, 그리고 옆에서 은근슬쩍 한 방씩 넣는 미나. 세 사람을 중재하느라고 나는 진땀을 뺐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 중에 가장 수습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간신히 상황을 마무리하고 무사히 세 사람 모두 돌려보낸 후에야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침대에 몸을 던져 특히나 피곤했던 오늘 하루를 복기하면서 나는 길고 긴 한숨을 뿔었다.

그러다 문득 미나가 쉬다 가자고 했던 그 상황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만약 내가 거기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했더니 피가 쏠려서 참지 못하고 침대 위에서 버둥거렸다. 번뇌 퇴산, 번뇌 퇴산.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 표시가 떴다. 확인해 보니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내 소원 아직 안 이루어진 거지?]

[다음에 쓰도록 할게]

[오늘 재밌었어]

[특pecially 오늘은 날 상상하면서 해도 좋아]

“안 한다고.”

나는 그만 폰을 침대에 던져버렸다.

주말이 끝나고 그 주 화요일 점심시간. 미나 사건으로 인해 어제 하루종일 유아에게 밀착마크 당한 덕분에 상당히 지쳐 있었던 나는 그녀의 감시망을 피해 별관 쪽의 복도를 걷고 있었다. 최대한 조용하게 있고 싶어서 인적이 드문 별관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창문 바깥으로 한 쌍의 남녀가 거닐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 일 없이 넘어갔을 테지만 그중 여학생이 눈에 익은 사람이어서 무심코 두 사람의 모습을 훑쳐보고 말았다.

지혜가 거기에 있었다. 그녀는 남자와 보폭을 맞춰 천천히 걸으며 이따금씩 뭐가 즐거운지 쿡쿡 웃고 있었다.

또한 남자 쪽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기억을 살살이 뒤져보니, 얼마 전에 체육관에서 봤던 얼굴임을 기억해냈다. 상당한 바람둥이에 신입생이나 전학생만 노린다는 질 나쁜 그 선배였다.

지혜를 노리고 있다는 미나의 추측은 사실이었던 건가.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던 나머지 창측에 바짝 붙어 걸으며 두 사람을 관찰했다. 일단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에 눈을 땔 수가 없었다.

“워!”

그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확 밀치면서 큰 소리를 냈다. 다른 사람을 훑쳐보고 있다는 상황과 더불어 한창 유아를 피해 다니고 있었기에 나는 말 그대로 펄쩍 뛰면서 크게 놀랐다.

허둥지둥 뒤를 돌아보니 배를 잡고 웃고 있는 미오 선배의 모습이 보였다.

“선배...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ㅋㅋㅋㅋ... 네가 답지 않게 창박을 보면서 사색에 잠겨 있길래, ㅋㅋ... 놀래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하하, 생각 이상으로 놀라던데! 볼 만 하더라!”

아예 박장대소를 하기 시작한 선배를 보면서 나는 미간의 주름을 잡았다. 유아나 미나에게 들킨 게 아니라서 그나마 다행이기는 했지만, 진짜 간 떨어지는 줄 알았네.

“어디, 뭐가 그리 재밌어서 정신없이 창박만 보냐?”

이제 다 웃었다는 듯 눈가에서 눈물을 훔치며 창가로 다가가는 선배. 곧 그녀 역시 한가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지혜와 망나니 선배를 발견했고, 곧바로 인상을 쓰며 질색이라는 티를 냈다.

“으엑, 저 녀석 또 저러고 있냐... 진짜 질리지도 않나 보네.”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반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유명한 녀석이잖아. 수시로 여자를 맛만 봤다 버린다던데. 나한테도 몇 번 집적거리길래 x나 패니까 담부턴 말도 안 걸어오더라고. 나도 엮여봤자 좋을 일 없으니 무시해주고 있다.”

뭐든지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은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만.

“근데 저 여자애... 잘 보니까 너네 반 전학생 아냐?”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실화냐... 하필이면 재한테 걸리네. 그러고 보니 자기 소문을 잘 모르는 애들을 노린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저러는구나.”

선배는 말하면서 내 눈치를 살짝 살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었다. 눈으로 다음 말을 재촉하니 선배는 마지못해 말을 이었다.

“넌 괜찮냐?”

“뭐가요?”

“재가 질 나쁜 놈한테 놀아나도.”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잖아요. 그리고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런 그렇다만...”

“선배야말로 웬일로 재를 걱정해요? 전에 그렇게 화를 내놓고.”

“그 일은 이제 잊어! 아니, 그래도 뭐랄까. 일단은 너네 반 애잖냐. 그리고 아는 사이고. 그리고 너도... 아니, 이 애긴 됐다. 아무튼 나라면 잠자리가 사나울 것 같아서.”

“무슨 말 하려고 하셨어요?”

“몰라도 돼 x발.”

왜 갑자기 욕을 하고 그러세요... 그나저나 이렇게 걱정해주는 것을 보면 은근히 선배 정이 많은 편이라니깐. 몇 번 본 적도 없고 인상도 좋지 않을 텐데.

하지만 나는 나설 생각이 들지 않았다. 녀석의 선택은 자유니까 말이다. 거기에 나랑 엮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그녀를 붙잡을 이유는 없다.

돌연 이렇게 녀석을 관찰하는 일 자체가 부끄럽게 느껴졌다. 이렇게 훑쳐본들 뭐가 달라지지도 않으니 나는 그만 두 사람으로부터 눈을 땀다.

그런데 선배 쪽을 돌아보니 어쩐지 뭔가가 불만족스러운 눈치였다.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몰

라 물끄러미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그녀는 뭐라 중얼거리고는 뒤통수를 뻗뻗 긁었다.

“그나저나 너 오늘 시간 되냐?”

“오늘이요? 오늘은 학원 가요.”

“그러면 내일은?”

“내일은 별일 없어요. 그런데 왜요?”

“...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너, 너 수학 과학은 좀 하잖아?”

“네?”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왔다. 부끄러운지 몸을 꼬물거리는 모습이 상당히 귀여워서 나도 모르게 눈을 잃고 말았다. 말한 본인도 점점 부끄러움이 올라오는지 아예 몸을 떨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폭발하고 말았다.

“아무튼!! 그렇게 알라고!! 내일 야자 시간에 너네 반 갈 테니까 남아 있어라, 없으면 죽여 버린다!!”

꽤 오래 지르더니 그녀는 쿵쿵거리며 복도 건너편으로 사라져버렸다. 한편 나는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한 채 그녀가 걸어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가 수업 종이 울리는 소리에 겨우 교실로 돌아갈 생각이 들었다.

오늘 하루는 선생의 행동이 뭘 의미하는 건지 생각하다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어느덧 방과 후가 되었고, 나는 학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학원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더니 수업 시작 시간이 다 되어서 지혜가 나타났다. 애는 매번 아슬아슬하게 온단 말이지. 솔직히 장난 사건 이후 학원을 그만둘 줄 알았지만 저번 주에도 태연하게 등장한 덕분에 조금 놀랐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날 의식하는 것도 아니니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었다. 맞는 말이었다.

한편 그녀는 앉을 자리를 물색하듯 교실 안을 둘러보고는 혀를 찼다. 앉을 자리가 없겠지. 수업 시간이 가까우면 으레 빈자리가 다 차기 마련이다. 결국 그녀는 그나마 안면이 있는 내 옆자리를 골랐다.

“저번 주에도 이랬는데 좀 일찍 오지 그래?”

“난 너 옆에 앉아도 아무렇지 않은데?”

“그런 것 치고는 아까 혀를 찬 것 같은데.”

“기분 탓이야.”

“어련하시겠어.”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났으나 강사가 금방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약간 문제가 있는 모양이다. 보통 학생들은 강사가 오기까지 열심히 떠들기 마련이다. 이 시끄러운 분위기에 나도 편승하기로 했다. 방금 전 대화를 마지막으로 말이 없는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하지만 어떤 주제로 말을 걸지 금방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실수를 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해버리고 만 것이다. 하자마자 아차 싶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었다.

“그나저나 오늘 누구 남자랑 얘기하던데.”

“남자...? 언제?”

“점심시간에. 별관 근처에서.”

“아, 그거.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설마 엿본 거야?”

“우연히 봤을 뿐이야.”

어떻게 둘러대도 전혀 떳떳하지 못한 사건을 입에 올려버린 나의 어리석음을 원망했다. 그녀 역시 상당한 혐오감을 담은 표정으로 날 바라봤다. 그런 표정 하지 말아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명백히 적대적인 톤으로 쏘아붙였다.

“거기에 대해 내가 얘기해야 하나?”

“흠쳐본 건 미안.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잊으라고 하면 잊을게.”

“...”

그녀는 잠시 동안 침묵하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일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실 저번 주 금요일에 이미 만났어. 주말엔 같이 밥도 먹었고. 그동안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었는데 자기 취향이라고 하더라. 오늘도 같이 밥 먹고 산책하면서 얘기 좀 했어.”

“그걸 응한 거야?”

“거절할 이유도 없잖아?”

“그렇게 모르는 남자 덩석덩석 따라갔다가 큰일 난다, 너.”

“신경 끄시지.”

이 또한 내가 예상한 반응이었다. 그녀는 잠깐 발끈했다가 진정하려는 듯 헛기침을 하고는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했어.”

“어땠는데.”

“왜 내가 관심 가지는데?”

“됐으니까 말해봐.”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배려심도 있고, 위트도 있고.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

그 대답을 듣고 가슴에 묘한 술렁임이 일었다. 지금이라면 말할 수 있다. 그 사람 쓰레기라고. 여자를 갖고 놀다 버리는 놈이라고. 유아에게서, 미나에게서, 선배에게서 들은 얘기를 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아무 일도 없이 끝낼 수 있다.

“.....너 그 사람...”

하지만 나는 끝까지 망설였다. 그리고 시간은 그런 나를 비웃듯이 기다려주지 않았다.

강사가 들어오자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한순간 내 쪽으로 쏠려있던 그녀의 관심도 강사를 향했다. 침묵 속에서 나는 차마 말을 잊지 못했다. 닭 쫓던 개가 지붕만 쳐다보듯 내 입술도 허공을 저었다.

그리고 나는 나를 합리화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녀석은 믿지 않을 거고, 그런 말을 한 나를 더욱 이상하게 쳐다볼 거라고. 신경 끄라고, 네가 뭔데 참견이냐고 말할 거라고. 나는 멋대로 그녀의 반응을 상상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렇게 그날 하루는 끝이 났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사라져버렸다. 내가 말을 걸 틈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혼자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창밖의 야경을 보면서 나는 은연 중에 생각했다.

강사가 조금만 더 늦었으면 좋았을걸, 하고.

다음 날 아침. 최대한 어제 일을 잊으려고 행동하면서 학교에 도착했다. 반에 들어가자 미나와 뭔가 얘기를 하고 있던 유아가 나를 발견하고는 눈을 반짝 빛내면서 쏘살같이 달려왔다.

마치 주인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 같았다.

“어서 와, 현아!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날 애타게 기다리셨을까.”

“방금 전까지 미나랑 꽃놀이 얘기하고 있었거든! 자자, 빨리 와! 계획 짜야지!!”

기어코 이 얘기가 왔다. 하긴 앞으로 2주일 정도만 있으면 꽃이 필 시기니, 꽃놀이 얘기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었다.

살랑살랑 손을 흔드는 미나에게 손으로 회답하고 자리에 앉았다. 자연스럽게 미나와 유아가 내 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꽃놀이 계획을 짜기로 했다.

“올해는 어디로 갈까?”

“작년에는 어린이 대공원에 갔었으니 올해는 강변 공원으로 갈까?”

“그거 좋은데. 솔직히 대공원 좀 멀었잖아. 피곤하더라. 강변 공원은 가까우니 괜찮을 거 같아.”

“그럼 강변 공원으로 결정이네. 그날 도시락은 뭐 싸갈까? 유아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현이가 만드는 건 뭐든지 맛있는데~ 아! 그래도 고기 먹고 싶다 고기~”

“그럼 스테이크 샐러드 같은 거 만들까? 베이컨말이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좋다 좋다!! 아~ 완전 맛있겠다!”

“날짜는 언제 정도가 좋을까? 4월이면 그래도 꽃 다 피었겠지?”

“중간고사가 18일부터니까 1~4일 중에 가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제일 좋겠네. 그러면 주말에 4월 2일이면 충분하겠지?”

“너무 좋아!! 아~ 벌써부터 기대된다. 어떡하지 현아?!”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좀 진정해. 그 외에도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 전날까지는 말해. 재료 준비해 둘 테니까.”

“응! 고마워, 현아!”

태양처럼 활짝 웃으며 내게 와락 달려드는 유아. 기쁜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교실에서는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영 곱지가 않다.

그때 뒷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지혜가 나타났다. 그녀는 내가 유아와 엉겨 붙어 있는 꼴을 보더니 언젠가 지은 적이 있는, 혐오감이 담긴 표정을 지으며 자기 자리로 향했다. 뭔가 대자뷰가 느껴지는데. 뭐냐, 그 표정은. 나도 곤란하다고.

어라? 이 생각도 그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별 실 없는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머릿속에서 바람둥이 선배에 관한 일을 밀어내려고 애를 썼다. 지혜 얼굴을 계속 보고 있다가는 괜한 말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최대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자.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나는 여전히 속으로 그런 말을 되뇌고 있었다.

“이건 뭐야...”

그날 저녁, 방과 후. 나는 선배와 약속한 대로 교실에 남아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짓말 같이 우리 반은 야자에 참가하는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교실은 그야말로 텅 빈 상태였다.

“야호~ 미오 선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히끔.”

유아랑 미나, 그리고 시유를 빼고 말이다.

교실에 들어온 선배는 나를 제외한 불청객 3명을 보고 곧바로 얼굴을 구겼다. 그 인상의 원 인에는 유아가 큰 지분을 차지할 테지. 아니나 다를까 유아는 선배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어 와락 팔짱을 끼고는 억지로 선배를 끌고 오기 시작했다.

한편 시작부터 선배의 험악한 얼굴을 본 시유는 울 것 같은 목소리를 내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다. 너 진짜로 지린 거 아니지?

한편 유아에 의해서 강제로 자리로 안내된 선배는 거칠게 유아의 손을 뿌리쳐 달아나고는 내 귓볼을 잡아당겼다. 아파요, 선배!

“아야야야!! 서, 선배, 왜 그러세요!”

“그건 내가 할 말이다, x발놈아! 애들이 왜 있는 건데?!”

“그, 그게... 유아가 오늘 방과 후 일정을 물어봐서 설명해줬더니, 재밌을 것 같다고 자기도 참가한다고. 그랬더니 미나도 자연스럽게 참가하게 됐고, 시유도 공부 잘 하니까 부르자고 해서... 아야야야!! 찢어져요, 선배!”

“야, 이 x끼야! 내가 둘이지만 보자고 했잖아! 바람둥이는 너다 이 x끼야!”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고! 아야야, 지, 진짜 찢어져!”

“와아악~!! 미오 선배, 우리 현이 괴롭히지 마세요! 현아, 내가 도와줄게!”

“네가 반대쪽 팔 땡기니까 더 늘어나잖아! 아야야야, 찢어진다 찢어져!!”

정말 있는 힘껏 귀를 잡아당기는 선배와 선배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반대쪽 팔을 잡아당기는 유아. 덕분에 나는 정말로 귀가 찢어지는 줄 알았다. 한동안 팔짱을 낀 채 흥미진진하게 수라장을 구경하던 미나가 더 빨리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한 쪽 귀를 잃을 뻔했다. 좀 더 일찍 도와주라고.

“저, 저... 지, 집에 가면 안 될까요.....?”

그 모든 상황을 목격한 시유가 정말로 울 것처럼 중얼거렸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의 귀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겨우 선배를 진정시키고 나서야 공부 모임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다지 순조롭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내가 이과 과목을, 미나가 문과 과목을 봐주고 시유는 우리 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봐주는 식으로 진행했지만, 선배의 학력은 상상 이하였고, 집중력도 금방 떨어져 30분도 하지 못하고 샤프 펜슬을 던져버렸다.

“내가 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하나고!”

“애초에 선배가 하자고 부르셨잖아요. 그보다 큰소리 치지 마세요. 시유 놀라니까.”

결국 인내심의 한계의 달한 선배는 책상 위에 대놓고 발을 올리면서 짜증을 부렸다. 그 모습에 곧바로 겁을 집어먹은 시유는 덜덜 떨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에 선배는 더더욱 짜증을 냈다. 그보다 남의 책상 위에 발 올리지 마세요, 선배.

“애는 왜 맨날 나만 보면 질질 짜는데? 야, 너 내가 무섭냐?”

“아, 아뇨.. 히끔, 하나도, 안 무서, 워요... 히끔!”

“안 무섭다고? 넌 내가 우습냐?”

“...우, 우에앵... 수, 수현 군...”

종국에는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내게 SOS를 청하기에, 나는 옳지 옳지, 착하지 하면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정말, 우리 애기 시유 애껴줘요! 그나저나 그런 나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다. 이건 어디까지나 달래주기 위한 거니까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애초에 난 너만 불렀었고...”

“네? 뭐라고요?”

“됐어 x까!”

이젠 나한테도 막 화내네.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모르겠다.

한편 그때까지 한가롭게 교과서에 낙서나 하고 있던 유아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면 흥분하기 시작했다.

“시유랑 미오 선배도 꽃놀이에 부르면 어떨까?!”

“뭐?”

“흠... 꼬, 꽃놀이요?”

잔뜩 빠져서 고개를 돌려버린 선배와 이제 겨우 눈물을 그치려는 시유가 유아의 말에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보니 두 사람을 꽃놀이에 초대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꽃놀이 행사부터가 나와 유아, 미나가 친해진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한 것이고 그때는 아직 두 사람과 인연이 없었으니 당연하다. 시유와 친해진 것은 4월이 한참 지한 후였고, 선배한테는 권유를 했었지만 왜 가야 하냐고 짜증을 부리며 거절했었다. 뭐, 그때는 유아나 미나랑 면식이 없었으니 그럴 만하지.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다들 서로에게 어느 정도 익숙해진 만큼 올해는 불려도 괜찮을 것이다. 사실 나도 선배랑 시유를 꽃놀이에 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아가 먼저 권해주니 수고를 덜었다.

“나도 그 생각 하고 있었어. 시유는 어때? 올해는 강변 공원 갈 생각이야.”

“가, 강변 공원이요... 저,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 있어요. 벚꽃이 예쁘게 피긴 하더라구요. 저, 저는 물론 좋아요...”

“오케이, 시유는 가는 걸로. 선배는 어때요?”

“갈 수는 있는데... 그거 언제 갈 건데?”

“일단 4월 2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애매하게 말을 뱃으면서 선배는 유아와 시유를 한 번 보고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아무래도 유아는 껄끄럽고, 자기가 가면 시유가 벌벌 떨 테니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아는 제가 잘 잡아둘 거고, 시유도 조금은 선배한테 익숙해지는 게 좋을 테니까요. 제가 여러모로 중재할게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야, 괜찮을 거 같은데...”

“오케이, 그럼 선배도 확정인 걸로.”

“아싸!! 선배, 저희 재밌게 놀아요!!”

“니가 이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잖냐!!”

선배가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 참가 의사를 밝히자, 유아가 기뻐하며 선배에게 달려들었고 선배는 바로 성질을 부리며 유아를 밀어내려 애썼다. 하지만 유아는 운동부 특유의 근력을 발휘해서 절대 떨어지려 하지 않아서 상당히 애를 먹어야만 했다.

이후로는 공부 모임이 아닌, 꽃놀이 계획 회의가 되어버렸다. 가서 뭐하고 놀 건지, 뭘 먹을 건지, 꽃놀이 후에 뒤풀이를 가자는 등 유아가 주도하여 신나게 놀 계획을 잔뜩 세웠다. 어찌

다 보니 판이 좀 커지긴 했는데 그만큼 분명 재밌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시간은 야자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고, 공부 모임은 당초의 목적은 거의 달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다. 교실 문을 잠그고 열쇠를 교무실에 갖다 두기 위하여 여자에들과 잠시 떨어진 나는 별일 없이 열쇠함에 열쇠를 두고 교무실을 나왔다.

“야.”

그때, 어두컴컴한 복도 속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렸다. 살짝 목소리가 깔려 있어서 그만 흠칫 놀라고 말았다.

“깜짝이야. 선배, 놀랐잖아요.”

“알 바냐? 그보다 말이야. 난 너 혼자만 불렀는데.”

“미안하다니깐요. 제가 유아 앞에서 말을 잘못 했어요.”

“뭐, 됐어.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그보다 내가 너만 부른 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야.”

“하고 싶은 말이요?”

뭐지? 선배가 굳이 나를 따로 부르면서까지 하고 싶은 말이라니. 굉장히 궁금해져서 암전히 선배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더니 선배가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쭈뼛거리면서 간신히 입을 열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게 좋아.”

“예?”

“너, 은근히 상대 눈치 많이 살피잖아. 상대 마음 신경 쓴다고 하고 싶은 말도 잘 못하고. 낯을 가린다고나 할까, 뭔가 자기가 먼저 다가가지 않는 성격이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그, 전학생 말이야!”

“지혜요?”

여기서 갑자기 지혜가 왜 나오지?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데 선배가 횡설수설 하면서 말을 이었다. 그 말이, 의외로 내 가슴 속을 푹 찔렀다.

“너, 개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표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요?”

“분명히 그랬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의 표정이었어.”

어제 내가 그런 표정을 지었던단 말인가. 전혀 자각이 없었다.

그보다 선배는 내 표정에서 그런 감정을 읽어냈단 말인가.

“그리고... 주변 사람을 엄청 아끼는 네 성격상 그 전학생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지 않은데 억지로 관심 없는 척 하는 거 같았어.”

“...개는 제 주변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런 말 한다. 있는 대로 신경 쓰이면서. 아무튼!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하라고. 말로 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고. 그리고 뭔가 일이 일어난 후에는 늦는다고.”

그렇게 끝을 맺은 선배는 멧쩍은지 뒤통수를 벽벽 긁고는 책 몸을 돌려버렸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걸로 끝! 자, 빨리 가자. 그 시끄러운 여자애가 너 기다린다.”

쑥스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억지로 쿵쿵거리며 걸어가는 선배. 내가 그 뒤를 금방 따라가지
않자 뒤를 획 돌아보면서 빨리 오라고 소리까지 지른다.

한편 나는 상당히 놀란 상태였다. 선배가 내 표정에서 그런 속마음을 읽어낸 것도 놀라웠
고, 설마 이런 충고를 받을 줄을 상상도 못 했기 때문이었다.

분명 선배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말해 준 것이리라. 나의 놀라움에는 선배의 그런 마
음씨도 들어 있었다. 내게 이 한 마디를 해주려고 하루 동안 끙끙댔을 선배의 모습을 생각하
니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나는 순식간에 선배를 따라잡아 솔직한 감정을 전했다.

“고마워요, 선배.”

“시끄러 임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잘 해보셔.”

장난스럽게 나를 툭 치고는 정말로 선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로였다.

지금은 침묵이 기분 좋게 느껴졌다.

모처럼 충고를 받았으니 실천해야지. 나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진 상태였다.

그 주 주말이 끝나고 찾아온 월요일.

학교 전체에 그녀와 그 선배가 사귀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